

# 진도군, '보배섬 유채꽃 축제'... 관매도에 펼쳐진 황금빛 봄 여행

###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축제, 13일부터 20일까지는 '나들이 기간' 운영

### 축제 기간 진도항-관매도 6회 왕복 운항... 셔틀버스와 미니 기차 운항

진도군은 4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조도면 관매도 일원에서 '2026 보배섬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의 개막식은 4월 9일(목) 오후 2시 30분에 열리며, 식전 공연으로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공연과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약 7만 5천 평 규모의 유채꽃 단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황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봄 풍경과 공연, 체험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섬 여행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라인댄스 ▲줄바네스 ▲아리락 국악공연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등이

진행되며, 체험행사로는 ▲찾아가는 서화 체험 ▲미니 기차 ▲전통 놀이 등이 준비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유채꽃 길 군민 걷기대회'와 '관매도 탐방로 숲 해설'을 통해 섬의 자연과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축제장에는 사진 명당(포토존), 마을 식당, 특산물 판매장,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 시설도 운영되며, 축제장과 관매항을 연결하는 왕복 운항 버스(셔틀버스)와 행사장 안에 있는 미니 기차는 1인 1일 통합이용권(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유채꽃 개화 기

간에 맞춰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 동안 '나들이 기간'을 운영하며, 사진 명당(포토존)과 이동식 화장실, 셔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관광객들이 관매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4월부터 관매도 직항 운항이 시작되어 진도항과 관매도를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으며, 유채꽃 축제 기간에는 여객선 1항차를 증편해 하루에 총 6번 왕복 운항하여 관매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매도의 청정 자연 속에서 황금빛 유채꽃을 즐기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분이 방문해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영 기자



## 완도군,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 자원화 나선다!

### 도 주관 '2026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공모 선정 18억 확보

완도군은 지난달 전라남도 주관 '2026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으로 사업 대상지인 '해신 장보고 지구 관광지(청해포구 촬영장)'에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경관 개선, 쉼터 조성, 관광 동선 정비 등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은 '26년 계획을 수립하여 '28년까지 추진된다.

청해포구 촬영장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활동 무대였던 청해진을 모티브로 지난 2004년 조성됐으며 2007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바다를 끼고 형성된 개방형 구조가 특징이며, 완도수목원과 국도 77호선 해안 도로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되어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찾는 곳이다.

청해포구 촬영장에서는 지난 2004년 시정률 30%를 기록한 해상왕 장보고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해신'을 시작으로 '태왕사신기', '대조영', '주몽', '추노', '조선 변호사'와 영화 '명량', '해적' 등을 촬영한 바 있다.

군은 재생 사업을 통해 청해포구 촬영장을 단장하여 관광객 유입, 드라마·영화 촬영 유치 등 관광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강원도 영월군의 청룡포와 장릉에 관광객이 대거 방문하는 등 드라마·영화 촬영지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으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강진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부터 티비 광고 송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2026년 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강진군이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추천하는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인지도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무료로 제작받게 되며, 특히 해당 영상은 LG헬로비전의 시청률

## 강진군, '동네가게 함께가게'로 소상공인 홍보 돕는다

### 30초 분량 홍보영상 무료 제작 및 티비 광고 송출지원 등

상위 30개 채널(tvN, ocn, 연합뉴스 등)을 통해 업체당 약 40,000뷰를 목표로 1개월간 송출되며, 전라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헬로전남'에도 게시되어 폭넓은 홍보 기회를 얻게 된다.

강진군에 배정된 총 지원 규모는 5개소이며, 현재 1개소는 접수가 완료되어 남은 4개소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강진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2026년 전라남도 공고를 참고해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061-430-3082로 연락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삼 강진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문적인 홍보 영상 제작과 TV 광고는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 비용 부담이 큰 영역"이라며 "강진군에 배정된 남은 4개소의 기회를 꼭 잡아 지역 가게들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송광민)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무기질 비료 등 농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벼 농자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14억 원인 사업비를 17억 원으로 3억 원 증액하고, 지원단가를 ha당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최대 10ha까지). 이는 약 17.6% 인상된 수준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 영광군, 벼 농자재 지원단가 ha 당 20만원으로 상향

현장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중동사태 발발 이전 대비 6.7%에서 최대 12.8%까지 상승하였으며, 요소 비료 원자재 가격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농업용 필름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역시 수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농가 경

영부담과 농자재 확보 불확실성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벼 재배 필수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제정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첫 사업 확대로, 영광군의

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해 농업 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농업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보성군은 4월 3일부터 6월까지 관내 주유소 이용 시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기존 14%에서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특별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군민의 유튜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기존에 구매 시 10% 선할인과 결제 금액의 4% 캐시백이 제공되며, 이번 특

## 보성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주유소 특별 할인 시행

### 최대 25% 혜택 6월까지 한시 운영... 민생경제 활성화 기대

별 할인 기간에는 주유소 결제 시 11% 추가 캐시백이 적용돼 최대 2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은 보성군 내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 가능하며, 캐시백 적립 한도는 최대 10만 원이다. 다만, LPG 충전소와 연 매

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

용이 제한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착)'의 '캐시백 ON/OFF' 기능을 통해 활성화되며, 설정 이후 결제 금액에서 우선 차감된다.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

일하게 10% 할인이 유지되며, 카드형과 지류형을 합산한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추가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은 할인을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 광양시 보건소,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 구강검진·불소도포·치솔질 교육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광양시 보건소는 3월 31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농촌지역 9개교의 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예방진료,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상반기 「찾아가는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구강건강실태조사 ▲학년별 구강보건교육 및 바른 치솔질 교육 ▲구강검진 후 맞춤형 상담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간단한 충치치료와 유치발치 ▲불소용약약치 ▲계속구강건강관리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및 배부 등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치솔질을 습관화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건강은 평생 건강의 출발점인 만큼 성장기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해 지역 아동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